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45 _ 2013. 10 |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YOUTH REPORT

VOL.45 _ 2013. 10 www.nypi.re.kr

발행일 2013. 10. 30 발행인 이재연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2188-8800 팩스 2188-8869

제 작 계문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VOL.45_2013. 10 ▶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 1.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04
- 2. 청소년 문제행동 정책 대안 10

CONTENTS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요약

- 청소년 문제행동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 큰 문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 상황임.
- 반면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대책은 중·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기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교사지도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연령층의 피해 및 가해로부터의 적절한 보호를 제도권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6년 8월 보건복지부는 전국 12개 시·8도 94개 초등학교 7천 7백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선별 검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에 의하면 불안·우울·공포·강박증 등 정서적 문제가 있는 학생이 20.1%,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행동 학생이 11.6%, 정서와 문제행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학생은 25.8%였음.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4명 중 1명은 정서적으로나 행동측면에서 병적 징후를 가지고 있음.
- 2011년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초 학교폭력 피해연령은 11.4세, 최초 가출연령은 13.6세, 최초 성관계 경험 연령은 14.6세, 흡입제 최초 경험연령 11.3세 등 각종 청소년문제의 최초 발생연령이 하향화되는 추세임.
- 본원에서 대검찰청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소년범죄 유형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범죄의 경우 14세에서 16세까지 청소년이

66%정도 증가하였으며, 강력범죄는 13세미만이 76%, 14세-16세가 500%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우발적 범죄, 호기심, 부주의가 가장 높으나, 2005년 이후에는 이익을 위한 욕심이 약 64배 증가하였고, 유혹이 1.9배, 생활비 마련 2.3배, 유흥비 1.46배로 나타났음. 이는 과거의 범죄가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경우라면 최근 저연령층의 청소년들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 있음. 이 결과 학교에서는 빵셔틀, 돈을 훔치거나 뺏는 범죄, 비싼 물건을 강제로 강탈하는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문제행동 원인분석을 위한 본원의 청소년문제행동 저연령화에 대한 저연령층(초등생, 중등생)을 대상으로한 전국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유형(가해, 피해, 가출, 무단결석, 유해장소출입, 자살, 게임중독 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심리적불안감, 갈등적 부모관계 갈등적 친구관계, 유해환경 접촉기회, 비도덕적 행동, 위계에 의한 폭력 경험 등이 중요한 원인임. 특히 위계에 의한 폭력(교사, 부모, 이웃)은 다른 모든 변수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또래 친구들 간의 폭력 등의 문제해결에 정책을 우선 순위로 두기보다는 앞으로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교사와 부모의 폭력을 막는 방법과 폭력으로부터 저연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수단, 그리고 가정과 교사 폭력피해로부터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더불어 주요원인으로 제시된 비도덕적 행동, 심리적 불안감, 갈등적인 부모관계 및 친구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개발 프로그램, 유해환경 개선 방안이 요구됨.

1.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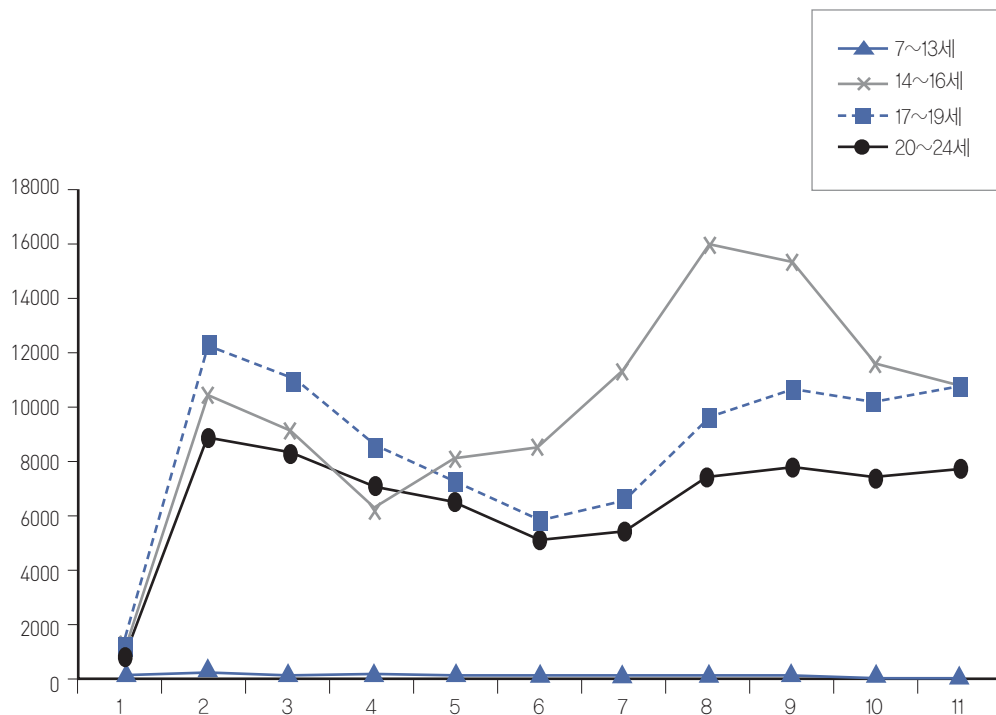
■ 저연령화 실태

- ▶ 전국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2년사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92.8% 증가함. 학년별로 초등생 363%, 중학생 187%, 고등학생은 184%로 저연령층의 학교폭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구 분	2010	2011	2012
폭력가해	19,949명	26,925명	38,466명

학년별	2010	2012
초등생	657명	2,390명
중등생	14,179명	26,622명
고등학생	5,113명	9,453명

- ▶ 본원의 대검찰청, 경찰청 등 2001년 이후 10년간의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재산범죄는 14세-16세 청소년이 2001년 11,412명에서 2011년 17,136으로 약 66.6% 증가하였음.
 - 강력범죄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13세 미만은 약 76%로 증가, 14-16세 청소년의 경우는 약 800%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년도별 학생범죄자 강력범죄 연령 변화 추이

- 과실범죄는 13세 미만은 2001년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14세-16세는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소년범죄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중요한 동기로는 우발적 범죄, 호기심,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 기타 이익을 위한 욕심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5년이후 우발적 범죄나 호기심, 부주의는 약간 줄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이익을 위한 욕심은 약 64배 증가, 유혹 1.9배, 생활비 마련 2.3배, 유흥비 1.46배로 경제적 이익 범죄가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름.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의 원인

▶ 문제행동 유형별 가장 영향력이 높은 원인은 아래와 같음.

- 가해행동 : 초등생은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2.069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06.4%씩 증가함. 중등생은 2.819배, 확률적으로는 181.9%씩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경험 : 초등생은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 한 단위 상승할수록 다른 문제의 피해집단이 될 가능성이 2.245배 증가, 확률로는 124.5%씩 증가함. 중등생은 피해집단이 될 가능성이 2.558배, 확률적으로는 155.8%씩 증가함.
- 가출 : 초등생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가출 가능성은 2.244배, 확률적으로는 124.4%씩 증가, 중등생은 2.250배, 확률적으로는 125%씩 확대 됨.
- 무단결석 : 초등생은 비도덕적 행동이 한 단위 증가하면 초등생의 무단결석은 1.059배, 확률적으로는 5.9%씩 증가함, 중등생은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무단결석 할 가능성이 2.320배, 확률적으로는 132%씩 확대 됨.
- 유해환경접촉 : 초등생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 한 단위 상승할 때마다 유해 장소 출입이 가능성이 2.850배, 중등생은 5.260배, 확률적으로는 426%씩 증가 함.
- 자살시도 : 초등생 심리적 불안감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1.141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6.9%씩 증가, 중등생은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중등생의 자살 시도 경험은 2.598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58.9%씩 확대됨.
- 게임중독 : 초등생 유해환경 접촉기회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초등생의 게임중독 가능성은 1.160배, 확률적으로는 16%씩 증가, 중등생의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 한 단위 증가할수록 게임중독 가능성은 1.826배, 확률적으로 82.6%씩 증가 함.
- 전국조사 분석결과 청소년 문제행동 영향 요인은 아래표와 같으며, 청소년의 시기 혹은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나 (-)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함.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동일한 사건이나 영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며, 정책개발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성장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응방법이 달라져야함. 예를 들면 긍정적 친구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행동예방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중등시기에는 같이 유해환경을 찾아가게 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함.

구분	청소년전기(초등)							청소년중기(중등)						
	가해 경험	피해 경험	가출 경험	무단 결석	유해장소 출입	자살 시도	게임 중독	가해	피해	가출	무단 결석	유해 장소 출입	자살 시도	게임 중독
금전지향태도											+		-	
심리적 불안감	+	+	+			+		+	+		+		+	
자아존중감		+					-						-	
긍정적부모관계			-			-				-	-		-	
갈등적부모관계			+	+			+			+				
긍정적친구관계										+		-	+	
갈등적친구관계	+	+						+	+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태도											-			-
유해 환경접촉기회					+		+				+	+		+
비도덕적 행동	+			+				+		+				+
위계에 의한 폭력 경험	+	+	+		+			+	+	+	+	+	+	+
계	+4	+4	+3	+2	+2	+1	+2	+4	+3	+4	+4	+2	+3	+3
			-1			-1	-1			-1	-2	-1	-3	-1

*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임, +문제행동을 강화, -는 문제행동을 완화

▶ 교사폭력 및 가정폭력 집단별 청소년문제행동 경험 차이 비교

- 청소년문제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위계에 의한 폭력(교사와 부모에 의한 폭력)으로 모든 청소년문제행동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다른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부모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이 문제행동을 경험할 경우보다 초등학교는 평균 5배 이상, 중학교는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교사폭력경험			가출경험			가해경험			왕따경험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초등학교	없다	95.7%	4.3%	.000	96.4%	3.6%	.000	95.0%	5.0%	.000	92.9%	7.1%	.000
	있다	74.5%	25.5%		81.9%	18.1%		80.9%	19.1%		73.4%	26.6%	
중학교	없다	93.0%	7.0%	.000	93.2%	6.8%	.000	92.8%	7.2%	.000	89.1%	10.9%	.000
	있다	79.8%	20.2%		73.2%	26.8%		75.4%	24.6%		68.3%	31.7%	
전체	없다	94.4%	5.6%	.000	94.8%	5.2%	.000	93.9%	6.1%	.000	91.0%	9.0%	.000
	있다	78.0%	22.0%		76.2%	23.8%		77.3%	22.7%		70.0%	30.0%	

구분		금품갈취			협박경험			피해경험			성추행경험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초등학교	없다	95.9%	4.1%	.000	98.1%	1.9%	.001	97.6%	2.4%	.000	98.7%	1.3%	.040
	있다	81.9%	18.1%		91.5%	8.5%		81.9%	18.1%		95.7%	4.3%	
중학교	없다	91.3%	8.7%	.000	97.7%	2.3%	.000	97.6%	2.4%	.000	97.0%	3.0%	.000
	있다	71.0%	29.0%		89.6%	10.4%		88.0%	12.0%		89.6%	10.4%	
전체	없다	93.6%	6.4%	.000	97.9%	2.1%	.000	97.6%	2.4%	.000	97.9%	2.1%	.000
	있다	74.7%	25.3%		90.3%	9.7%		85.9%	14.1%		91.7%	8.3%	

구분		무단결석경험			유해장소출입경험			자살시도경험			게임중독경험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초등학교	없다	97.6%	2.4%	.000	99.8%	.2%	.002	96.3%	3.7%	.000	97.8%	2.2%	.000
	있다	88.3%	11.7%		96.8%	3.2%		80.9%	19.1%		89.4%	10.6%	
중학교	없다	93.7%	6.3%	.000	99.5%	.5%	.000	93.7%	6.3%	.000	96.9%	3.1%	.000
	있다	78.7%	21.3%		96.2%	3.8%		72.1%	27.9%		91.3%	8.7%	
전체	없다	95.7%	4.3%	.000	99.7%	.3%	.000	95.0%	5.0%	.000	97.4%	2.6%	.000
	있다	81.9%	18.1%		96.4%	3.6%		75.1%	24.9%		90.6%	9.4%	

– 다음으로 교사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다른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교사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이 문제행동을 경험할 경우보다 초등학교는 평균 3배 이상, 중학교는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가출경험			p	가해경험			p	왕따경험			p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초등학교	없다	96.7%	3.3%	.000	95.4%	4.6%	.000	.000	93.0%	7.0%	.000	.000
	있다	83.2%	16.8%		78.1%	21.9%			78.7%	21.3%		
중학교	없다	93.1%	6.9%	.000	93.2%	6.8%	.000	.000	88.9%	11.1%	.000	.000
	있다	79.1%	20.9%		75.9%	24.1%			75.5%	24.5%		
전체	없다	94.9%	5.1%	.000	94.3%	5.7%	.000	.000	91.0%	9.0%	.000	.000
	있다	80.7%	19.3%		76.7%	23.3%			76.7%	23.3%		

구분	금품갈취			p	협박경험			p	피해경험			p	p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초등학교	없다	96.0%	4.0%	.000	98.3%	1.7%	.000	.000	97.6%	2.4%	.000	98.8%	1.2%
	있다	85.2%	14.8%		91.6%	8.4%			87.7%	12.3%		94.2%	5.8%
중학교	없다	91.0%	9.0%	.000	97.8%	2.2%	.000	.000	97.7%	2.3%	.000	97.1%	2.9%
	있다	79.1%	20.9%		90.8%	9.2%			90.0%	10.0%		90.0%	10.0%
전체	없다	93.6%	6.4%	.000	98.1%	1.9%	.000	.000	97.6%	2.4%	.000	98.0%	2.0%
	있다	81.4%	18.6%		91.1%	8.9%			89.1%	10.9%		91.6%	8.4%

구분	무단결석경험			p	유해장소출입경험			p	자살시도경험			p	p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초등학교	없다	97.6%	2.4%	.001	99.8%	.2%	.001	.001	96.3%	3.7%	.000	97.7%	2.3%
	있다	92.3%	7.7%		97.4%	2.6%			87.1%	12.9%		94.2%	5.8%
중학교	없다	93.8%	6.2%	.000	99.6%	.4%	.000	.000	93.7%	6.3%	.000	97.0%	3.0%
	있다	81.5%	18.5%		95.6%	4.4%			78.3%	21.7%		92.0%	8.0%
전체	없다	95.7%	4.3%	.000	99.7%	.3%	.000	.000	95.0%	5.0%	.000	97.4%	2.6%
	있다	85.6%	14.4%		96.3%	3.7%			81.7%	18.3%		92.8%	7.2%

2. 청소년 문제행동 정책 대안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 ▶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세부조항이 없음. 특히 제15조 “교육적 선도”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됨.

■ 초등교육법 개정

- ▶ 교사의 직접적인 체벌(물리적 체벌)의 금지원칙을 천명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함. 체벌불가피성은 ‘사회적 통념’이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불확정적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교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급성이 요구된 경우에 한해야 하며, 긴급성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인권·자치법」제정 필요

- ▶ 학교현장의 구조적 모순과 폐쇄성을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임.
 - 학급회가 법적 기구가 되면 학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학교자치의 기초단위로서의 학급자치가 안정되면 학생들이 자치와 협동의 원리를 익히면서 민주적 시민이 되는 훈련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이 성인(교사)에 의해 훈육과 지도방법을 절차적으로 구현한 것을 학생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될 것임.
 - 청소년도 학생이라는 신분 이전에 인간으로서 부여되는 기본권이 있으며, 지금까지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유보되어 있는 기본권을 되찾게 됨. 헌법과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러 가지 권고들을 실천하는 것이며, 너무 당연한 것임.

■ 국가차원의 도덕인성 함양 체계 구축

- ▶ 중앙 정부 내에 도덕인성 함양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담당부서’의 설치,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후세대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유, 초, 중등학교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평가할 담당부서를 적어도 국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 하는 교사가 각종 연구비지원,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역량이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수업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도록 함.
 - 도덕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창의경영 학교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 지원 대상 학교 선발 시 인성교육을 잘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함(현행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 학교문화 선도학교에서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로).
 - 직전교육의 차원에서 예비교사의 도덕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관련 교직과목 이수 강화하는 방안. 현직교사교육의 강화를 위해 현장 교원 대상의 학교폭력의 위기 대응 및 관리교육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발, 제작, 보급함.

■ 문제행동 예방 및 역량 함양 프로그램 구축

- ▶ 자아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첫째, 일반적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탐색해 보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방법, 둘째, 사회적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욕구충족은 인간관계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이해하기라는 목표 아래 나와 상대방의 바람 탐색, 나와 상대방의 욕구를 5가지 기본욕구와 연결하고, 서로 만족시킬 방법을 찾고 발표하기 등의 활동을 수행
- ▶ 긍정적 심리조절 프로그램 운영 : 직접적으로 자기조절력,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 ▶ 부모관계 회복 프로그램 : 영국의 Restorative Thinking Parenting Programme 사례를 참조하여 학생, 교사, 부모가 함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회복적 사법위원회에 등록된 과정임. 여기에 따르면 서로 충족되지않는 욕구를 해결하기위하여 갈등제거, 의사소통방법, 자녀발달단계 등 관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2시간 30분 세션을 4번 이상 진행하고, 이들 집단 간의 지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토록함.

■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 범죄방어 공간이론에 따른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 개선 : 현재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범죄예방 대책은 외부출입 제한, CCTV설치, 학교경찰배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효과는 예산투입 대비 미흡한 실정임.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교사에 의한 폭력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방어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첫째는 기존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시에 복도에서도 교실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강화유리 등으로 투명하게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과거 시행노력을 하였으나 교사의 사생활 침해 등의 반대로 폐기되었으나, 교실이 사생활이라고 볼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또한 교사문제는 교무실을 활용하거나, 초등학교는 교탁을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

둘째는 신규학교를 설립시에는 건물을 1자형태로 짓기보다는 마주보거나, 삼각형태로 구성하여 서로 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실은 개방적으로, 화장실은 앞쪽으로 배치하여 우범장소가 되는 것을 막도록 함.

▶ 지역사회 유해환경은 지금까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학교주변이나, 유흥가 주변 등에 대해 최소한의 제한을 실시하고 있음. 이를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와 연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정한 구역으로 확대해야함.

－ 유해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유해환경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도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이 가지 않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청소년문제 및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문제나 범죄 등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유해환경의 추가적인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야함. 이를 위해 유해업소별로 유해성 기준을 마련하고, 가칭 ‘청소년유해환경 감소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단위의 유해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함.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